

6월 30일 바레인서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이 등재결정 직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숫자로 본 산사 세계유산 등재



1425 등재위 발족부터 세계유산 등재까지 걸린 일수

14 등재위 참여 기관수
(조계종 · 문화재청 · 지자체 12곳)

6 국내 · 국제 학술대회 횟수
(국내3 · 국제3)



5 조사 및 연구용역 횟수

3 국내외 전문가 실사 횟수



34 추진위 발간 자료집
학술서 총수

5 홍보기념품 제작 건수
(파일폴더, 에코백, 달력 등)

불교 · 정부 합심… 山寺를 세계에 알리다

'한국의 산지 승원' 등재 어떻게 이뤄졌나

지난 2014년 8월 추진위 발족
조계종 · 문화재청 등 14곳 참여
유산 등재까지 1425일 '대장정'

국내 · 국제학술대회, 조사 · 연구 등
숨 쉴 틈 없이 꾸준히 준비 작업

4곳만 등재 권고에도 포기 않고
정오표 · 외교협력문서 작성하는 등
종단 · 추진위 실무진들 노력으로
각국 대표단 모두 등재 선회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425일. 지난 2014년 8월 6일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現 산사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2018년 6월 30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걸린 시간이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등재추진위에 참여한 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약 4년이라는 시간동안 '산사 세계유산 등재'라는 목표 아래 쉼 없이 뛰어왔다.

佛 · 官, 세계유산 등재 위해 손잡다

한국 전통산사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세계에 인정받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조계종과 사찰,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전통산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은 지난 2014년에 본격화됐다. 조계종은 2014년 8월 6일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을 비롯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보은군, 공주시, 순천시, 해남군, 안동시, 영주시, 양산시 등 14개 기관과 세계유산 등재 대상 전통산사인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등 7곳 사찰이 등재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이 진행됐다. 또한 등재를 위한 전문위원들도 10명을 위촉했다.

이후 등재추진위원회는 등재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부터 6번의 국내 · 국제학술대회와 2차례의 국내외 전문가 예비 답사, 학술총서 발행 등을 통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 실사와 최종 보고서 발간에 만전을 기했다. 연속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의 전통산사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바꿔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게 했다.

일부 등재 권고를 모두 등재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고, 올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됐다. 이후 반년 동안 이코모스의 실사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재는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이코모스가 지난 5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7개 산사 중 연속유산으로서의 선정 논리 부족 등을 이유로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4개 산사만을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후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의 행보는 빨라졌다. 조계종 문화부와 등재추진위는 이코모스의 등재권고문 중 '산사'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한 기술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정오표를 제작했다. 작성된 정오표를 등재추진위는 6월 8일 세계유산센터로 발송했고, 이코모스는 정오표 12개 항목 중 11개의 오류를 인정했다.

또한 등재추진위는 별도로 지지 교섭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를 통해 각국의 유네스코 대표단에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 문화부장 종민 스님은 출국 전 외교부 차관을 만나 외교적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1개국 대표단들 '모두 등재' 지지

6월 30일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로 올라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해 등재권고문을 작성한 크리스탈 바클리(Kristal Buckley) 이코모스 어드바이져가 산사의 역사적 유 · 무형의 가치를 위원국과 회원국에 설명했다.

이후 스페인 대표단이 "7개 산사가 모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19개국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누구보다 산사의 가치를 아는 중국 대표단의 구오짠(Guo Zhan)과 마곡사를 직접 방문했던 유네스코 짐바브웨 대표부 대사는 "권고문에서 제외된 봉정사, 마곡사, 선암사가 다른 4개 산사와 함께 연속 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지지를 표했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헝가리, 보스니아, 노르웨이, 쿠웨이트, 호주, 탄자니아, 바레인 등 많은 위원국들도 "7개 사찰 일괄 등재"를 주장하며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승려들의 예경 · 수행 · 신행 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 ·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각국 대표단의 입장 선회는 종단과 등재추진위가 작성한 정오표 등의 역할이 특히 컸다.

실제, 노르웨이 대표단은 "등재추진위가 제작한 보충자료(정오표)를 통해 봉정사, 마곡사, 선암사 3개 사찰의 역사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호주 대표단도 "제공받은 외교 지지 교섭자료가 충분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정오표와 외교 지지 교섭자료 작성을 담당한 김정은 등재추진위 책임연구원은 "등재권고문이 정식 배포됐을 때 산사의 역사성, 발전 과정에 대한 오류와 이해도가 떨어졌음을 인지했다"면서 "연속 유산으로서의 산사의 독특한 특징과 수행 · 예경 · 선교 겸학 등 무형적 요소들을 대표단이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운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은 "캐나다 대표단은 정오표를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밝힐 정도로 정오표에 대한 찬사가 많았다"며 "적확한 오류 지적과 산사 이해도 높인 정오표와 교섭 자료는 이번 등재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통도사 금강계단 | 부석사 풍경 | 봉정사 만세루 | 법주사 팔상전 | 마곡사 전경 | 선암사 대웅전앞 석탑 | 대흥사 전경 〈사진제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

역사 · 문화 · 신앙 오롯이 간직한 고찰들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산지 승원' 7곳

부처님 사리 모신 불보사찰
영축산 영축총림 통도사

통도사(通度寺)는 경상남도 양산시 영축산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로 조계종 제15교구본사이다.

통도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佛寶寺刹)'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고 건물 뒷면에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설치해 부처님의 법신(法身)을 상징하는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다.

의상대사 · 선묘낭자 설화 담긴 도량
영주 봉황산 부석사

부석사(浮石寺)는 경상북도 영주시 봉황산 중턱에 위치한 사찰로서 조계종 16교구에 속한 사찰이다.

부석사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과 목조건물에 그려진 벽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는 부석사의 유구한 역사를 일깨워준다.

태화천 잔잔하게 흐르는 물절(水寺)
공주시 태화산 마곡사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麻谷寺)는 충청남도 공주시 태화산에 자리 잡고 있다. 마곡사가 위치한 곳은 예로부터 동방 제일의 복된 땅(福地)이라 일컬어지던 길지이다. 절 앞에는 태화천이 잔잔히 흐르는데, 조선시대 문인인 이순인(李純仁)은 골짜기의 풍경을 읊은 시에서 마곡사를 '물절(水寺)'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마곡사는 화승(畵僧) 계보로도 유명해 남방화소(南方畵所)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화승을 대대로 배출하였다.

부처님 법 머무는 미륵신앙 요람
보은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法住寺)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에 위치한 조계종 제5교구본사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법주사는 553년(진흥왕 14)에 의신조사(義信祖師)에 의해 창건됐다. 법주사라는 절 이름은 의신조사가 천축으로 구법여행을 떠났다가 불경을 싣고 돌아와서 머물렀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法)이 머무는(住) 절'이라는 뜻이 법주사라 이름을 지었다.

현재 법주사는 금동미륵대불로 유명한 미륵신앙의 요람으로 사적 제503호로 지정돼 있으며, 속리산 법주사 일원 또한 명승 제61호로 지정돼 있다.

最古 목조 건축물 간직한 고찰
안동 천등산 봉정사

봉정사(鳳停寺)는 경상북도 안동시 천등산에 위치한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에 속한다.

봉정사는 안동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명소로,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가람을 지니고 있다. 봉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인 극락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고승 배출한 고요한 수행처
순천 조계산 선암사

선암사(仙巖寺)는 호남 명산중의 하나인 조계산 자락에 있는 사찰이다.

조계산은 원래 중국에 있는 지명인데, 〈송광사지(松廣寺誌)〉에 의하면 "1209년 고려 희종이 어릴 적부터 존경하던 보조국사가 옛 길상사 터에 수선사(修禪社)를 세우고 정혜결사(定慧結社)를 펼친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하여 '조계산 수선사'라는 편액을 내리고 널리 찬양해 조계산으로 부르게 됐다"고 전한다.

선암사는 봄이면 피어나는 선암매(천연기념물 제488호)와 진입로의 승선교(보물 제400호) 등 아름다운 문화재로도 유명한 절이다.

서산대사 의발 보관한 호국도량
해남 두륜산 대흥사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大興寺)는 우리국토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두륜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자리한 사찰이다.

대흥사는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호국도량이며, 13명의 대종사(大宗師)와 13명의 대강사(大講師)가 이곳에서 배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13대종사 가운데 한 명인 초의선사로 인해 대흥사는 우리나라 차문화(茶文化)의 성지로도 자리매김하게 됐다.